

전후 『반공독본』의 헤게모니 전략과 사회문화적 함의*

박 형 준**

차 례

- | | |
|---|-------------------------------------|
| 1. 독본, 지식의 상식화와 진리화 | 4. 도의적 반공주의: 도의(道義)적 통 |
| 2. 문교부 추천 『반공독본』, 휴전 후
의 사회 관리 미디어 | 치술과 반공/멸공의 내적 논리 |
| 3. 적대적 반공주의: 적대적 교수지
침과 ‘공산(共産)’이라는 호러 | 5. 문교부 인정 『반공독본』의 재생산
과 사회문화적 함의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전쟁 직후 발간된 『반공독본』 1-6권의 실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문교부 추천 반공교육 텍스트의 구성 방식과 내용, 그리고 헤게모니 전략을 고찰한 연구이다. 『반공독본』은 국민학교 현장에서 사용된 독본류 반공교재이지만, 특정 교과와 읽기 교재만이 아니라 1950년대 문화교육의 국가주의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념적 표상이자 서사적 텍스트가 된다. 1950년대 반공교육은 학교교육 내의 개별 교과

* 이 논문은 2018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조교수

차원에서만 전개된 것이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반공교재이다. 이 교과용 도서는 한국전쟁 직후 학습자에게 반공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창안된 문화적 기제이자, 대한민국의 국민 정체성 형성을 위한 문화적 계몽의 도구였다. 특히, 『반공독본』은 ‘문교부 추천’ 교재로, 반공교육의 최전선에서 있는 한국교육문화협회의 「교수 지침」에 근거한 제도적 형식이다. 교과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주체를 ‘국가 속 개인’으로 구성하는 통치 미디어이다. 『반공독본』은 지배질서의 전후 사회 관리와 기강 확립이 어떤 헤게모니 전략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가 된다. 전후(戰後) 국민국가의 정체성은 적대적 반공주의와 도의적 반공주의라는 헤게모니 전략을 통해 입안되었다. 그것은 두 가지 담론 효과를 발휘하는데, 먼저, 『반공독본』의 적대적 반공주의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 통치 이데올로기로, 타자/타국에 대한 적의감을 균열 없이 학습자에게 기입하는 ‘지배적 독서’ 체험을 부여했다. 둘째, 『반공독본』의 정서적, 도덕적 규율을 구성하는 도의(道義)적 반공주의는 반공국가의 지배질서를 유연하게 승인하는 ‘타협적 독서’ 체험을 만들어낸다. 이와 같이, “문교부 추천”(혹은 “인정”) 반공교재 『반공독본』은 지배적 독서와 타협적 독서를 통해,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저항적 독서의 가능성을 말살시키며, 전후 국민국가 통치의 사상적, 정서적 기반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반공독본』, 헤게모니 전략, 반공교육, 도의교육, 지배적 독서, 타협적 독서

1. 독본, 지식의 상식화와 진리화

이 논문은 한국전쟁 직후 발간된 『반공독본』 1-6권의 실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¹⁾ 문교부 추천 반공교육 텍스트 『반공독본』의 헤게모니 전략과 사회문화적 함의를 고찰한 연구이다. 『반공독본』은 단순한 교과 교재가 아니라, 1950년대 문화교육의 국가주의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념적 표상이자 서사적 텍스트이다.

1950년대 반공교육은 학교교육 내의 개별 교과 차원에서만 전개된 것이 아니라—국어(문학), 한문, 도덕, 사회 등과 같은 제도권 교과교육은 물론이고—²⁾ 학교 바깥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독본(讀本)’류 반공교재인데, 그 중에서도 『반공독본』은 한국전쟁 직후 학습자에게 반공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창안된 문화적 기제이자, 국민 정체성 형성을 위한 계몽의 도구였다.

그러므로 국가주의적 문화교육의 미디어인 『반공독본』에 대한 연구는 문화 분석 혹은 담론 분석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언어

1) 이 논문에서 분석 텍스트로 삼는 것은 1954년 박문출판사에서 발행된 『반공독본』 1-6권이다. 1950년대에 일반적으로 유통되던 독본류 반공교재는 ‘반공독본’으로 표기하며, 개별 저작물은 『반공독본』으로 적도록 한다. 필자는 1950년대 문학/문화교육 기초 자료조사 과정에서 『반공독본』의 판본이 ‘박문출판사(1954년)본’과 ‘이문당(1956년)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반공독본』 연구의 저본이 되는 박문출판사 판을 모두 수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반공독본』 1-6권의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의 텍스트가 되는 『반공독본』(박문출판사, 1954) 중에서, 2, 4, 5권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이순욱 교수의 도움으로 자료의 실체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2) 사회교과와 도덕교과를 아우르는 전시 반공교육의 핵심 교재를 실증한 연구로는 「1950년대 반공교과서의 서술전략 연구—『반공독본』과 『애국독본』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33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269-287쪽; 이순욱, 「한국전쟁기 전시독본의 형성 기반과 논리」, 『한국문학논총』 58집, 한국문화회, 2011, 423-452쪽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교육과 문화교육은 다양한 삶의 양식을 이해하는 학습 과정이기도 하지만, 종종 국가 이념을 순응적으로 수용하는 장치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반공독본』에 담겨 있는 언어와 문화는 단순한 의사소통 정보가 아니라, 특정한 사고를 상식화하고 진리화하는 담론 실천의 도구이다.

이론적 입장과 논자에 따라 시차(視差)가 있긴 하지만—문화집변, 문화화, 조건화, 사회화 등—, 문화가 학습되는 것이자 사회적인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화가 특정 시각(사회적 시각)이나 관점을 형성하는 지식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³⁾이라면, 이 지식과 믿음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 분석하는 것은 독본(讀本)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⁴⁾ 이 논문에서 전후 『반공독본』이 당시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이념적 가치의 정당성을 어떻게 획득하고 재생산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반공독본』은 ‘문교부 추천’ 혹은 ‘문교부 인정’ 교재였다.⁵⁾ 이 교재가 사적인 차원에서 향유하는 참고도서나 읽기자료가 아니라, 문교부의 반공/도의교육을 전파하는 최전선에 서 있는 한국교육문화협회의 「교수지침」⁶⁾에 근거한 공식(부)교재라는 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3) 일레인 볼드윈 외, 조애리 외 옮김, 『문화 코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화연구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한울, 2014, 31쪽.

4) 국어(문학)와 한문 등과 같은 어문교과에 함축되어 있는 민족주의와 반공주의의 내적 논리를 ‘독본’을 통해 고찰한 연구로는, 박용찬, 「한국전쟁 전후, 현대시의 국어교과서 정진화 과정」, 『한국 현대시의 정진과 매체』, 소명출판, 2011; 박형준, 「한국 문학교육의 제도화 과정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2012; 이순욱, 「한국전쟁기 문학독본과 문학교육—한국전쟁기 독본 연구 2」, 『한국문학논총』 66집, 한국 문학회, 2014, 361-391쪽; 이순욱·임주탁, 「한국전쟁기 한문독본 연구—『常用漢字讀本』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71집, 한국문학회, 2015, 549-577쪽 등을 참고할 수 있다.

5)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지만, 교과서 검인정 체제가 정비되기 이전에 발간된 박문출판사의 『반공독본』은 “문교부 추천” 교재였으며, 1956년 제1차 교육 과정이 시작되면서 간행된 이문당의 『반공독본』은 “문교부 인정” 교재였다.

6) 「교수지침」, 『반독독본』 1권, 박문출판사, 1954. 교수지침은 표지 안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쪽수는 기록하지 않는다.

『반공독본』의 가치를 입안하는 지식과 믿음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질문하는 것은, 연구자 개인의 관심에 따른 작업이 아니라 문학교육과 문화교육의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할 공공의 탐구 과제라 하겠다. 『반공독본』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학습자들에게 지식을 이입해 온 각종 교과서와 교재, 그리고 문화 텍스트에 대한 고찰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다양한 독본류 반공교재 중에서도, 전후 『반공독본』은 기타의 반공교재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역사적, 문화적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기 반공교육 문헌에 대한 갈무리와 자료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반공독본’은 아직까지도 그 실체가 완전하게 복원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1954년 박문출판사 판본 『반공독본』의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반공독본』의 내용과 헤게모니 전략 분석을 통해 1950년대 국가주의 문화교육의 한 양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문교부 추천 『반공독본』, 휴전 후의 사회 관리 미디어

『반공독본』의 문헌적 내력을 변증하기에 앞서, 이 책의 생산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조건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 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전쟁 기간 동안 발행된 대표적인 반공독본으로는 『전시생활』과 『전시독본』을 들 수 있다. 선행 연구(자)의 지난한 고증 노력 덕분에,⁷⁾ 그 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여러 독본의 실체, 유형, 내용 등이 대부분 밝혀지면서, 한국전쟁 기간에 이루어

7) 이순옥은 『전시생활』과 『전시독본』의 실체와 유형을 꼼꼼하게 고증함으로써, 한국전쟁기 독본류 반공교재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는 이 기간 중에 발간된 『전시생활』과 『전시독본』에 대한 내용적 특징을 “결전교육”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순옥, 「한국전쟁기 전시독본의 형성 기반과 논리」, 『한국문학논총』 58집, 한국문학회, 2011, 423-452쪽을 참조할 것.

진 ‘국민 형성 프로젝트’(“결전교육”)의 교육문화적 전수 형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전쟁 기간 중 발간된 반공독본이 ‘전시 구국 정신’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전후의 독본류 반공교재는 ‘전후 사회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휴전 직후에 문교부에서 발간한 『문교월보』의 권두언이 “道義 再建”이거나, 기획 특집 주제가 “道義 教育과 基本問題”로 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문교부 장관은 전국장학관협회에서 “訓示”한 원고 「전국장학관에게 고함」을 통해, “戰亂으로 因한 國民의 精神的 荒廢”과 “事變後 混亂”⁸⁾을 극복하기 위한 “國家 再建”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반공독본』 속표지의 「교수지침」에 기록된 “유의”사항에도, “휴전선(休戰線)에 따르는 남북의 분단(分斷)과 항상 공산(共產) 침략의 위험성이 있음을 밝혀서 각오를 새롭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시 중에 발간된 『전시생활』이나 『전시독본』과 달리, 『반공독본』은 휴전 이후의 주체 관리를 위해 창안된 신식 미디어인 셈이다. 한국전쟁기 문화교육의 측면에서 양자의 교재가 교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전후 『반공독본』의 자리와 성격은 세심하게 구분되어 고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기본 문헌 정리조차 이루어져 있지 않아, 연구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1950년대 국가주의적 문화교육의 담론 분석은 통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헌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 문헌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반공독본』의 텍스트 확정과 자료 조사가 이 연구의 기본 방법이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1954년 박문출판사에서 발행된 『(문교부 추천) 반공독본』 1-6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문교월보 편집실, 「全國 獎學官에게 告함」, 『문교월보』 제8호, 1953.12.25.

권	목차	분량
1	1. 광복절 2. 즐거운 나라 3. 공산당은 나쁘다 4. 38선을 넘어온 북남이네 5. 이북 이야기 6. 6·25 사변 7. 수남이 아버지 8. 용감한 우리 국군 9. 피란살이 10. 돌아온 언니 11. 이북을 빠져나온 노 대위 12. 용감히 싸운 김 소위	전체 63쪽
2	1. 갑자기 쳐들어온 괴로군 2. 피난 길 3. 평양을 찾은 날 4. 이북을 빠져나온 명수네 5. 오랑캐를 잡은 명수 6. 괴로군과 싸운 젊은이 7. 방공호 속의 괴로군 8. 언제나 배고픈 이북 농사꾼 9. 목숨을 빼앗긴 아저씨 10. 풀려나온 포로들 11. 붉은 스파이	전체 61쪽
3	첫째, 싸움 잘 거는 빨갱이 1. 6월 25일 2. 남아 있는 국군 아저씨 3. 괴로군이 들어온 세상 두째, 싸우는 대한 4. 제트기를 기다리는 마음 5. 국군이 된 언이 6. 국토 통일의 노래 7. 피난 길 8. 불타는 비행기와 함께 9. 전우의 노래 10. 반공 통일의 노래 세째, 가난한 빨갱이와 살기 좋은 우리나라 11. 판문점에서 온 편지	전체 65쪽
4	첫째, 침노하는 빨갱이 1. 6·25 2. 국군은 막았으나 3. 탱크 없는 국군의 슬픔 4. 뒷날을 약속한 국군 5. 분했던 일기 6. 빨갱이는 사람을 파리로 아냐? 7. 빼앗아 가는 빨갱이 두째, 빨갱이와 싸우는 사람들 9. 빈손으로 10. 백암산의 방패	전체 62쪽
5	첫째, 침략하는 공산주의 1. 쓰러린 90일 일기 2. 동해물과 백두산이 3. 납치되신 부모를 생각하며 두째, 바라는 자유 4. 철의 장막 5. 자유를 찾는 사람들 6. 자유를 찾아 온 기차 7. 자유의 문 세째, 반공의 깃발 8. 과테마라의 반공군 9. 위대하신 반공 지도자	전체 65쪽
6	첫째, 공산 세계의 모습 1. 공산주의에 대한 물음과 대답 2. 북한의 실정 3. 찬 바람이 도는 가정 두째, 반공하는 봉화(烽火) 4. 중공 격멸의 노래 5. 내 고향을 폭격하고 6. 임진강과 일남이네 손 세째, 자유를 찾아서 7. 미그 비행기로 탈출한 프랑크 중위 네째, 진정한 해방 8. 민족의 염원	전체 64쪽

※ 목차에서 강조는 인용자 표기, ‘두째’, ‘세째’, ‘네째’는 원문 표기이다.

『반공독본』은 모두 여섯 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방 직후부터 중등학교 교재와 단행본을 다수 출판해 온 박문출판사에서 발간되었다. 이 책의 판형은 4·6판(128mm×182mm)이고, 분량은 61쪽에서 65쪽에 걸쳐 있으며 값은 권당 80환이다. 당시 신문 기사와 광고를 확인한 결과, 박문출판사는 1950년대에도 꾸준히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

되고 있던 문학독본을 발간해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희승 교수가 엮은 『歷代國文學精華』⁹⁾와 양주동 교수의 『國文學古典讀本』¹⁰⁾ 등이 대표적인 예다. 뿐만 아니라, 『국어국문학』 제1호,¹¹⁾ 대한교육문화 협회에서 발간되는 교재 『(문교부장관 추천) 과학세계』 등¹²⁾과 같은 학술서와 각급 학교의 교재도 내고 있다. 또 전쟁 직후 어린이들의 전시 경험담(“童心을 통해 본 韓國戰爭의 참모습”)을 모은 『내가 겪은 이번 전쟁』¹³⁾이라는 작문 수기집도 발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급 학교의 교재, 학술지, 교양서 등의 발행 경험을 충분히 갖춘 박문출판사에서 문교부 반공교재를 출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¹⁴⁾

『반공독본』은 현재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국민학교용’ 반공교재(혹은 부교재)로 확인된다. 두 가지를 근거로 들 수 있는데, 첫째 국민학교 현장에서 반공독본을 교재로 채택하고 있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1955년의 신문 기사에서 “現下 國民教 一年 教科書 種目에 國語, 算數, 社會生活, 反共讀本, 自然 等 五種目이 있는데 本校에서는 國語 算數 外에는 全然 배워주지 않고 있는 形便이다”¹⁵⁾라고 하여, 학교 현장에서 “反共讀本”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당시에는 『(문교부 추천) 애국생활』(대한출판문화사, 1954), 『(문교부 추천) 도의생활』(문화

9) 「광고」, 『동아일보』, 1952년 6월 22일.

10) 「광고」, 『동아일보』, 1953년 5월 13일.

11) 「신간 소개」, 『동아일보』, 1952년 11월 12일.

12) 「광고」, 『경향신문』, 1952년 7월 6일.

13) 「광고」, 『동아일보』, 1953년 5월 31일.

14) 박문출판사가 교육문화계에서 좋은 교재를 내고 있는 중견 출판사라는 사실을 다음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후죽순처럼 해방 후 한 칸의 사무실만 있으면 책 한 권 변변히 내지 못해도 출판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우루루 솟아났던 것이 과거 실정이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독서계에 이체를 띠우면서 무진 예를 써가며 민족문화 향상을 꾀해왔던 (『우리말 큰사전』을 간행한) ‘을유문화사’ 그리고 ‘박문서관’ 등의 몇몇 출판사의 공적을 잊을 수는 없다” 「1950년의 “호프” (3) 출판계」, 『경향신문』, 1952년 7월 6일.

15) 「營利를 위한 教科書나, 眞正한 教育家되어주기를」, 『경향신문』, 1955년 10월 20일.

교육출판사, 1954) 등과 같은 다양한 도의/반공독본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학교의 ‘반공독본’이 정확히 박물출판사의 『반공독본』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허나, 대부분의 반공독본이 여섯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서, 『반공독본』이 국민학교용 교재라는 것은 쉽게 입증 가능하다. 왜냐하면 개정 교육법(1951년 3월 20일)에 따라 중등학교 학제는 6년제에서 ‘중학 3년 + 고등 3년’으로 이미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또 중학 반공독본의 경우 『(문교부 추천) 애국독본-중등용』(우중사, 1955)에서와 같이, “중등용”을 표기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둘째, 『반공독본』 1~6권까지의 학습 내용이다. 1권은 초등 1학년 수준에 맞는 짧고 간단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글자 판형과 삽화도 큼직하게 배치하여, 국어 문식력이 높지 않은 학생들도 쉽게 ‘반공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6권으로 갈수록 서사적 요소와 교시적인 언술이 많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반공독본』 1-6권은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학년별로 학습 내용을 위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시기 나온 도의/반공교재인 『애국생활』과 비교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애국생활』은 1·2학년용, 3·4학년용, 5·6학년용으로 분책하여, 민족주의와 반공주의(“독립정신과 복진 통일”)¹⁶⁾를 함께 전하고 있다. 『도의생활』에서는 아예 속표지에 “초등 도의생활 5학년”¹⁷⁾이라고 하여 학교급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반공독본』 1-6권은 국민학교용 반공교재라는 것을 확정할 있다. 다만, 그것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교재인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

『반공독본』은 제목 그대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사활”을 건 “반공 교육”(「교수지침」)이다. 본격적인 내용 분석은 본문 3, 4장에서 다뤄야 하겠지만, 흥미로운 것은 『반공독본』의 구성 방식도 이념교육 매체의 성

16) 문화교육연구회, 「독립 정신과 복진 통일」, 『애국생활』 5·6학년용, 대한출판문화사, 1954, 4쪽.

17) 한국교육문화협회 편, 「도의생활」 5권, 문화교육출판사, 1954.

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표지가 국군의 전투 장면(2, 5, 6권), 아군의 탱크, 비행기, 항모(1, 4권), 그리고 태극기(3권)를 도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반공주의를 전장의 심상 구조로 재인하는 이미지인 셈이다. 다음으로, 각 권의 속표지마다 적혀 있는 “교수지침(教授指針)”이다. 이 교재를 지도할 때는 분명한 적대감에 입각하여 반공교육을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반공독본』의 판권지에 “우리의 맹세”¹⁸⁾가 프로파간다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독본의 체제 구성 방식이 반공 의식의 전수와 적대적 멸공 의식으로 수미상관되어 있는 셈이다. 다음 장에서는 『반공독본』의 「교수 지침」에 입각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반공교재의 이념적 적대주의 전술과 그 담론 효과를 살펴보고 하겠다.

3. 적대적 반공주의: 적대적 교수지침과 ‘공산(共産)’이라는 호러

『반공독본』 1-6권은 분명한 ‘교수지침(①~⑥항)’에 입각한 반공서사와 논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이 텍스트의 내용을 “익힘” 문제를 통해 정당화된 지식으로 수용한다. 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지만, 『도의생활』이나 『애국생활』과 같은 도의교육 교재가 우회적인 반공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면, 『반공독본』은 적대적 혐오를 반공교육의 직접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6권에 수록되어 있는 ‘반공서사’이다. 이들 반공서사/삽화는 모두 반공교육의 문교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조금 길지만 「교수지침」 전문을 인용하면

18)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자.”

다음과 같다.

우리 민족의 사활 문제(死活 問題)로 되어 있는 반공교육이 굳세게 실시되어야 할 시급한 때임을 생각하고 이 교재를 꾸민 것입니다. 이 교재를 지도함에 있어, 특히 아래의 몇 조항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①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과 민족 전통을 투철히 알려서, 공산주의가 우리 민족과는 어느 모로 보든지, 불구대천(不俱戴天)의 반대임을 명확히 이해하게 할 것입니다. ② 민주주의 근본 정신을 명확히 파악시키는 동시에, 침략만을 일삼는 공산주의를 절대 배격(排擊)케 할 것이며 6·25 사변의 원인을 철저히 알려서 진실한 반공(反共), 멸공(滅共)생활을 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③ 휴전선(休戰線)에 따르는 남북의 분단(分斷)과 항상 공산(共產) 침략의 위험성이 있음을 밝혀서 각오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④ 민주 경제(經濟)의 우수성과 민주주의 발전 방법의 탁월함을 알리는 동시에, 유물적(唯物的)이며 항상 파괴적이고, 비평화적인 악독한 혁명만을 일삼는 공산주의를 철저히 비판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⑤ 유물론(唯物論)을 신봉(信奉)하는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尊嚴性)을 으뜸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뚜렷하게 체험(體驗)하게 할 것입니다. ⑥ 이상의 것을 지도 생활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 힘 문제로서 더욱 발전적(發展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¹⁹⁾

『반공독본』의 교수지침은 전후 반공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래 교수지침은 실제 교실에서 교재를 활용하여 교수·학습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이 경우에는 절대적인 준거가 된다. 특히 ③항에서와 같이, “휴전선(休戰線)에 따르는 남북의 분단(分斷)과 항상 공산(共產) 침략의 위험성”이 잔존해 있다는 현실 인식은 반공교육의 문제를 “민족의 사활”을 건 생존 문제로 도약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피/야로 식별될 수밖에 없는 “불구대천(不俱戴天)의 반대”, 다시 말해 적대화된 원수의 형상으로 기술될 수밖에 없다.

19) 『교수지침』, 『반공독본』 1-6권, 박문출판사, 1954.

또한 한국전쟁의 근본 원인과 책임이 “공산주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공산주의를 절대 배격(排擊)”하면서 “반공(反共), 멸공(滅共)생활”을 진작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④, ⑤항에서 보듯, 그것은 구체적으로 남북 체제 비교와 우위 선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적시된다. 전후 공간의 혼란한 사회상을 강력한 안티테제(반공)에 입각하여 관리하는 동시에, 지배질서의 이데올로기를 공고하게 하는 ‘국민 만들기’ 전략이다. 3권의 「6. 국토 통일의 노래」나 「10. 반공 통일의 노래」처럼 운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²⁰⁾ 이 책의 대부분은 반공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초등 독본의 서사적 경향성은 『도의생활』 5권의 「교수지침」에서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²¹⁾ 다만, 고학년 교재에 해당하는 5, 6권에 이르면, 인물, 배경, 사건에 입각한 이야기보다는, 정보와 주장을 직립하게 전달하는 ‘논설조’의 글이 다수 배치되기도 한다. 『반공독본』 6권의 첫 머리에 놓이는 글 세 편(「공산주의에 대한 물음과 대답」, 「북한의 실정」, 「찬 바람이 도는 가정」)이 대표적인 예다. 저학년 독본에서는 간단한 이야기와 삽화를 통해 교수지침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고학년 독본에서는 조금씩 글의 수준과 유형(대담, 일기

20) 「반공 통일의 노래」 전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풍치어 한 덩이 된 민주의 세계/ 외치고 부르짖는 자유와 평화/ 태양 같이 빛나는 정의의 행진/ 꺾어라 무절러라 반역의 무리/ 골수에 사무쳤다 민족의 비원/ 나가자 반공 통일 구국의 길로// 조국의 남북 강산 피로 물들고/ 내 동포 주검 속에 헤매는 오늘/ 뛰쳐나 건져낼 이 그가 누구냐/ 손 들고 맹세하라 앞을 나서라/ 골수에 사무쳤다 민족의 비원/ 나가자 반공 통일 구국의 길로.”(3권, 60쪽) 이 운문은 격앙된 어조로 북한을 민족의 동포가 아닌 “반역의 무리”로 식별해 내고 있다.

21) 「교수지침」에는 “이 책을 편집함에 있어서는 목적을 도의생활에 두면서 이전과 같이 설교적(說敎的)으로 서술하는 태도를 버리고 어디까지나 부르더운 분위기에서 어린이의 마음 속에 즐거움과 감격을 주워 읽는 동안에 그들로 하여금 배울 것을 배우고 스스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서는 못 견디게 하려는 데에 힘을 기우렸다. 이것은 어린이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전국교육자 제 선생님들의 각별하신 후원과 아동문학가 제 선생님들의 끊임없으신 수고의 결과입니다”라고 적어 놓고 있다. 「교수지침」, 『도의생활』 5권, 1954, 문화교육출판사 참조.

형식 등)을 다양하게 취하고 있다. 그것이 일기나 서간 형식을 취하더라도, 대부분의 글은 주인공 화자와 내포 서술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아저씨는 담배를 피우시며, 다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권, 34쪽)²²⁾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수지침」 구현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실에 들어와서는 담임 선생님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나라는, 사람의 목숨과 자유를 꼭 귀하게 여깁니다. 백성들이 바라는 대로, 백성들의 나라를 세워서, 나라 살림을 하여 갑니다. 누구든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중략) 민주주의 나라는 즐거운 나라입니다.” (중략) “공산주의 나라는, 공산당이 백성들을, 소나 말처럼 제 마음대로 부려먹는 나라입니다. 백성들은 공산당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잡아 가두고, 죽이기도 합니다. (중략) 공산주의 나라는 괴로운 나라입니다.” (1권, 9-11쪽)

1권에서, 민주주의는 “즐거운 나라”로, 공산주의는 “괴로운 나라”로 분별된다. 가장 낮은 학년의 학생이 공부할 반공교재 첫 권에서부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체제 비교와 선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공산당에 대한 이미지(“수남이는 공산당은 참 나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권, 33쪽)와 아군(귀순자)에 대한 이미지(“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1권 63쪽)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 제제는 “민주 경제(經濟)의 우수성과 민주주의 발전 방법의 탁월함을 알리는”(④항) 교수지침을 반영한 지문이라 하겠다. 3권의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가난한 빨갱이와 살기 좋은 우리나라」라는 글과 같이, 미국과 한국에서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사진기를 보고 공산군이 놀랐다는 에피소드도 마찬가지이다.²³⁾

22) 3, 4장 본문에서 『반공독본』 1-6권을 직접 인용할 경우,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2권은 “6·25 사변의 원인을 철저히 알”리고 “침략만을 일삼는 공산주의를 절대 배격(排擊)케 할 것”이라는 교수지침(②항)을 반영하고 있다. 「갑자기 쳐들어온 괴로군」은 한국전쟁 발발에서부터 국군의 평양 입성, 그리고 “중공 오랑캐”의 개입에 이르기까지, 사건화된 전시 에피소드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극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피난길에서 괴뢰군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긴 이야기나, 숨어 있는 중공 오랑캐를 국군에 고발하여 사로잡거나, 괴뢰군을 잡은 이북 청년들의 사연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3권은 아예 ‘침략자 공산’과 ‘싸우는 대한’을 맞세우고 있다. 「3. 괴뢰군이 들어온 세상」의 학습 목표(“괴뢰군이 우리 고향에 쳐 들어와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던가를 알아보자”)는 반공교육의 체감 효과를 높이는 성취활동으로, 교수지침 ①, ③항(“공산(共産) 침략의 위험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공산주의를 우리 삶(“고장”)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근원적 공포로 수용하도록 만드는 제재 구성이다. 이런 교수지침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반공독본』 텍스트를 일종의 ‘호러’²⁴⁾서사로 볼 수 있다.

봄이 가고, 가을도 가고, 또 봄과 가을이 지나,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끔찍한 6·25도 어느 만큼 잊을 법도 합니다마는 날이 갈수록 소름이 끼치고 억울한 감정이 새로워져, 저는 괴로운 매일을

- 23) “이 사진기는 미국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진기다. 그러나, 모든 물자가 부족한 공산군에게는 사진기만 하더라도 갖기 어려운 물건”(3권, 61쪽)이라는 선전서사가 그것이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체제 우위론이다.
- 24) 호러는 공포와 혐오감을 동시에 구성하는 감정이다. “호러는 라틴어 동사 ‘호레오(horreo)’에서 유래한다. 이 말은 그리스어 ‘프리스소(phrisso)’와 마찬가지로 닭살 돋는 것과 같은 소름 돋는 신체감각을 뜻한다. 특히 모골이 송연하다고 표현할 때의 감각”과 같다. “이탈리아어 형용사 ‘머리털이 곤두선(orrilante)’ 속에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 (중략) 동시에 호러에는 테러처럼 공포의 요소가 있지만, 실은 공포(fear)보다도 더한 것, 즉 강한 혐오감(repugnance)을 동반한다”고 한다. 김동규, 「호러리즘, 폭력의 새 이름」, 『오늘의 문예비평』 110호, 오문비, 2018, 177쪽.

눈물로 지내고 있습니다. (중략) 괴뢰군은 지긋지긋한 총부리로 시민을 노리고, 길가는 사람들의 걸음 소리도 무서움에 떨고, 시민은 모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죽을 끓여서 하루하루를 살아 나가는 설음보다도, 마음대로 말도 못하는 공포심이 더 슬펐습니다.(5권, 23-24쪽)

2, 3권의 구성과 내용은 4권, 5권에서 반복/심화된다. 인용문에서 보듯, “괴뢰군”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협박”과 “공포”를 조장하는 폭력의 주체이다. 그들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테러의 상징이다.²⁵⁾ 그러므로 “빨갱이들 참 나쁜 놈들야. 쳐부수어야 돼!”(2권, 52쪽)라는 적대감은 죽음 공포나 타자에 대한 혐오 감정을 동반한다. 『반공독본』의 편찬/서술 전략은, 남한을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나라로, 북한을 화해 불가능한 적의 형상이자 비인간적인 나라로 악마화하고 있다. 현실은 휴전 상황이지만, 독본의 공간 속에서는 전시(戰時)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2권의 「9. 목숨을 빼앗긴 아저씨」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몸이 아파도 아프다는 말도 못합니다”에서와 같이—, 북한 사람들은 “고약한 빨갱이놈들”(혹은 “공산군”, “괴뢰군”, “중공 오랑캐”)로 명명되며, 이는 적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전술 전략, 다시 말해 ‘공산(共產)’이라는 타자를 호러화하는 언술방식이다.

이와 같이 『반공독본』은 ‘공산(共產)’이라는 호러(horror)적 타자를 발명함으로써, 국민국가 내부의 결속력을 높이는 국가주의적 통치술을 실행하고 있다. 이 교수지침과 재현 텍스트는 단순한 교수·학습 안내문이나 제재가 아니다. 교육적 언어는 순수하고 가치중립적인 체계로만 구축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문화 담론의 효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학습 내용의 우선 순위와 배제 목록을 입안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적 지식’을 창안한다. 즉, ①~⑤항의 교수지침을 반공서사(혹은 일기나

25) 이와 같이, “유물론(唯物論)을 신봉(信奉)하는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尊嚴性)을 으뜸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뚜렷하게 체험(體驗)하게 할 것”이라는 교수지침 ⑤항은 반어적 형식의 학습 제재로 구현된다.

운문)를 통해 전달하는 『반공독본』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 통치 이데올로기가 된다.²⁶⁾ 이 과정에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개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으로서의 교육 언어’는 비판적으로 검토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자면, 『반공독본』의 교수지침은, 타자/타국에 대한 적대의식을 학습자에게 매끄럽게 기입하는 ‘지배적 독서’²⁷⁾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전후 국민국가의 반공적 정체성은 노골적인 적대주의나 이념 투쟁만이 아니라, 문화적 타협과 순응적 제식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구축된다. 도의적 반공주의를 통한 주체 생산이 그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반공독본』의 도의적 통치 전략이 반공/멸공의 내적 논리를 입안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 도의적 반공주의: 도의(道義)적 통치술과 반공/멸공의 내적 논리

『반공독본』에 내재해 있는 도의주의와 반공주의의 관계를 분석하기

26) 독본의 “익힘” 문제를 통해 학습 내용은 정당화되고 지식화된다. 이 과정 역시 교수지침 ⑥항(“익힘 문제로서 더욱 발전적(發展的)으로 나가게” 함)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27) 주디 자일스와 팀 미들턴은 지배질서의 헤게모니 구성 과정이 지배적 독서, 타협적 독서, 저항적 독서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헤게모니는 다수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사회적 갈등 없이 구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대립하는 계급의 ‘저항’과 ‘합병’ 과정 속에서 구축된다. 상탈 무폐 식으로 말하자면, 문화적 텍스트는 서로 다른 문화적 힘들의 모순적 혼합으로 이루어지며, 또 상이한 정치적 입장이나 갈등 요소들과 ‘접합/탈접합’하는 과정이다. 접합은 텍스트에 대한 지배적 독서와 타협적 독서로 이루어지며, 탈접합은 저항적 독서를 통해 가능해진다. 본고에서는 주체의 저항적 독서를 말살하는 교육제도의 ‘지배적 독서’와 ‘타협적 독서’ 과정과 담론 효과에 주목하였다. 주디 자일스 외, 장성희 옮김, 『문화 학습: 실천적 입문』, 동문선, 2003, 104쪽.

위해서는, 이 책의 생산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조건을 이해해야 한다. 『반공독본』 1권 초판이 발행된 것은 1954년 11월 30일로, 휴전 후 1년 남짓이 지난 시기이다. 한국전쟁은 참담한 인명 피해와 물질 파괴를 가져온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보존하고 계승해야 하는 도덕적 가치, 다시 말해 최소한의 인간다움마저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논고의 논점과 달라, 길게 서술할 수 없지만) 김성한, 장용학, 이범선, 손창섭 작가 등의 소설 텍스트 속에 반영되어 있는 전후 공간의 참상과 인간성 파멸의 풍경은, 과연 그 시기를 “윤리의 붕괴”와 “일체의 가치 척도를 무너뜨”²⁸⁾려버린 잉여인간의 시대라 명명할 만하다. 1950년대 학교교육의 방향이 학생들의 풍기 단속과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도의(道義)교육’으로 점철되었던 것 역시 그 때문이다.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이전의 도의교육은 “공백 또는 무기준 시대”²⁹⁾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으나, 그것은 교육과정 입안 전의 교과 내용을 의미하는 것일 뿐, 실제 도의교육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문교부 『문교개관』 자료를 보면,³⁰⁾ 각 교과의 교수·학습 활동 외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교육지침이 도의교육과 반공교육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56년에 새롭게 제정된 제1차 교육과정(“새 교육과정”)의 특색 중에서, 교과 학습활동과 비교과 특별활동을 제외한 핵심 방향은 도의/반공교육에 있었다. 문교부가 추천(혹은 인정)하는 대표적인 가치교육 교재가 『도의생활』과 『반공독본』이라는 것은 이를 방증하는 예이다.

28)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권, 민음사, 2002, 116쪽.

29) 김영돈, 「정과 시간의 도덕(도의) 과목은 어떻게 지도되어야만 할 것인가」, 『도의교육』 제2집, 도의교육위원회, 1957, 30쪽.

30) “6·25 사변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일시나마 혼란됨과 함께 우리의 양풍 미속도 흩어져 가는 느낌을 주게 되어 우리는 사회적 도의 훈련의 시급성이 요구되었다. (중략) 한편 문교부의 문교 정책으로서 반공교육을 강화하여 멸공 통일의 기백을 기르기로 했다”고 하여 도의교육과 반공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교부, 『문교개관』,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1958, 133쪽.

그러나 도의교육과 반공교육은 그리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도의생활』 4권의 「머리말」을 보면, “민족의 숙원인 남북 통일의 완수가 어찌 급하지 않으리오만 이 위대한 사업들을 완수하는 데의 원동력은 국민 도의의 양양에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새삼스럽게 국민 도덕의 타락을 걱정하는 바이다”³¹⁾라고 하면서, “正義感”과 “不屈精神”을 학습하는 도의교육 제재로 “공산당”의 무자비함에 맞서는 “소년”의 ‘희생정신’을 들고 있다. 이를테면, 반공적 도의교육인 셈이다. 『반공독본』 4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6단원 “빨갱이는 사람을 파리로 아나?”에서는, 공산당을 단순한 적군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위법적인 살인 행위(“소름이 끼치는 무서운 일”)를 자행하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다. 도의적 반공교육인 셈이다. 그것은 다음의 제재와 비교할 때 무척 대조적인 담론 효과를 발휘한다.

미군의 젊은이와 나라의 풍속이 다른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는 그리 쉽사리 친밀해 지지는 않았습시다마는 한 번 친하기만 하면, 불같은 우정이 맺어지군 했습니다. (중략) 한국의 젊은 군인이 깜짝 놀라 달려 왔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이 부상 당한 전우를 옮겨 놓아야 합니다. 몸집이 적은 한국의 젊은 군인은 몸집이 크고 무거운 미군의 부상병을 갖은 고생을 겪고 바위 뒤로 엮어 옮기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중략) 노래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고 총 소리와 대포 소리만 전선에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포탄에 쓰러진 두 전우의 얼굴에는 아름다운 미소가 어리어 있었습니다. (3권, 55-59쪽)

「전우의 노래」라는 이 글은, 출생과 문화 환경이 다른 아군 사이의 낭만적인 우정을 다루고 있다. “공산군의 박격포”에 죽어가는 “미군과 전우의 최후를 위하여 노래 부르는 젊은 국군”의 아름다운 인간애와 비극적 결말이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아군에 대한 연대감과 은혜

31) 한국교육문화협회, 「머리말」, 『도의생활』 4권, 문화교육출판사, 1954.

값이다. 익힘 문제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힘썼나 이야기
기를 하자”라는 질문에서 알 수 있듯, 이 읽기자료는 적탄에 맞아 쓰러
진 미군을 포기하지 않는 한국군의 의리와 휴머니티를 통해, 타국의 전
쟁에 참가한 “유엔군”에 대한 도의(道義)를 형상화하고 있다. 둘째, 이
제재는 피아의 구분과 적에 대한 혐오를 극대화한다. 공산군의 총탄과
박격포에서는 어떤 인간애와 도덕적 가치도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도
의적 차이는 피아를 구분하는 전장의 논리를 학습자의 심상 구조 속에
기입한다. 즉, 도의적 태도와 입장에 반공/멸공의 논리가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1950년대 당시에든 그러했지) 도덕(道德)적 개인과 도의(道義)적
개인은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
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가 개개인의 심성 발달과 성장을 건강하
게 견인하는 생활 규범과 가치의 목록을 보여주고 있다면, 후자는 국가
체계의 수호와 유지를 위한 국민의 덕목과 의무로 호명되고 있다. 도의
교육은 단순한 사회교과 교육이 아닌, 민족주의, 민주주의, 반공주의에
입각한 국가이데올로기 전수 형식이 된다. 그러므로 “도의교육이 강조되
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사회생활과 중심 교육의 한계보다는 전쟁의 영
향”³²⁾이라거나, “지배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이념교육의 장”³³⁾이라는
선행 연구는 타당하다. “도덕이나 도의”³⁴⁾나 하는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후 정신교육의 모든 영역에 “도의교육”³⁵⁾이 자리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반공독본』이 놓여 있는 전후 사회의 풍경은 이러한
‘도의적 개인’을 창안하는 데 온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으며, 그것
은 『반공독본』의 텍스트성(textuality)을 규명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조

32) 이동현, 「1950년대 “道義”교육과 국민 형성」,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1쪽.

33) 이동현, 「1950년대 국민화 담론 연구—‘道義’교육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
구』 43집,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08, 205쪽.

34) 『조선일보』, 1958년 10월 4일.

35) 『조선일보』, 1957년 4월 27일.

건이 된다.

도의교육과 반공교육은 상호교섭하면서, 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전수하는 문화적 침병 역할을 했다. 양자는 분명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강조하는 부분이 달랐다. 전자가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도덕률을 통해 국가 재건에 필요한 이념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면, 후자는 적대적 대상을 공포와 혐오의 정념으로 배제한 후 국민정신의 일자(一者)를 고안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피 것처럼, 도의교육과 반공교육은 그리 명료하게 분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반공독본』 3권의 「7. 피난 길」, 「8. 불타는 비행기와 함께」, 「9. 전우의 노래」 등은 국군과 미군의 활약상을 통해—도의적 교육 내용이라 부를 수 있는—, 국민이 길러야 할 용기와 의협심, 그리고 희생정신을 그려내고 있다.

도의적 텍스트는 언어이지만 하나의 ‘행위’처럼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친다.³⁶⁾ 이는 언어와 문화를 단순히 기호적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 분석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태도이다. 왜냐하면 언어적 재현이란, 문화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의미 생산’의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이때의 의미는 특정한 재현 체계들로부터 만들어지는데, 『반공독본』의 도의적 심상 구조에 은폐되어 있는 반공주의가 그것이다.

이와 같이 소련을 비롯한 여러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 일지라도, 만일 그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든가 혹은 공산주의자들의 욕을 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으면, 서슴치 않고 이를 고발하며 또는 밀고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구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리하여 공산주의 나라의 가정은 늘 찬 바람이 들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경계하며 지내야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식 간에 정도 아니요, 따듯

36) 예를 들어, 『반공독본』에서 공산국가는 도의를 상실한 비인간적 공동체로 묘사된다. 특히, 부서진 가정 문화는 공동체의 가치 몰락을 표상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신뢰를 부정하는 담론 효과를 발휘한다.

한 가정을 이룩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자기의 생명만을 가장 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와 서로 의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공산주의 나라의 가정인 것이다. (6권, 24-25쪽)

『반공독본』 6권에 수록되어 있는 「3. 찬바람이 도는 가정-가족들끼리 도 의심하는 사회」는 전후 도의교육의 권위를 최대치로 활용한 제재라고 볼 수 있다. 공산국가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의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패륜 사회’라는 것이다. 실제로, 가족 공동체가 거의 붕괴되어 있던 전후 사회에서는, 가정의 도의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도의생활』의 「교수지침」을 경유해 볼 수 있다. 도의교육의 지도계획 중 “가정(家庭)” 항목에는 1. 규칙 있는 생활, 2. 애정과 정서, 3. 가정의 한 사람으로, 4. 손님 대접, 5. 식구에 대한 태도, 6. 종교적 정서, 7. 피난과 가족 등의 지도 영역이 있다.³⁷⁾ 특히, 여기에서 “훌륭한 가족이 되었는가”를 판단하는 “효도, 의리, 단란”과 “웃 사람과 부모를 존경하는가”를 판단하는 “존경” 항목은 중요한 도의교육의 내용이 된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가족조차도 “감시”와 “공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공산국가를 도의적 공동체가 붕괴된 패륜 사회로 왜곡하는 담론 효과를 만들어낸다. 결국, 『반공독본』 속에 은폐되어 있는 도의적 반공주의는 공산국가에 대한 거부감과 멸공의 정서를 학습자의 ‘심적(心的) 동의’ 속에서 입안할 수 있는 효과적인 헤게모니 전략인 것이다.

정리하자면, 『반공독본』의 정서적, 도덕적 규율을 구성하는 도의(道

37) 이 교수지침에는 지도 요목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우정, 화목, 존경, 인권존중, 협력, 이타 봉사, 근면, 책임감, 인내, 연구, 노력, 극기, 지혜, 정의감, 판단력, 침착성, 모범, 인도, 명량, 용감, 예의, 단정, 정직, 절제, 질서, 탐구, 사랑, 애호, 위생, 건강, 근로, 절약, 공익, 확실, 명확, 계획, 준비, 효도, 의리, 단락, 임무, 의무감, 존경, 조국애, 충성, 인류애, 자유, 평화, 민주, 사회, 친선, 교류 등이다. 여기에서 직접 가족과 관련된 도의 항목은 “훌륭한 가족이 되었는가”를 판단하는 “효도, 의리, 단락”과 “웃 사람과 부모를 존경하는가”에 해당하는 “존경” 항목이다. 「교수지침」, 『도의생활』 5권, 1954, 문화교육출판사 참조.

義)적 읽기 제재는 학습자의 자기 승인을 통해 반공국가의 지배질서에 ‘집합’되는 ‘타협적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헤게모니 전략인 셈이다. 그렇다면 문교부 추천 『반공독본』은 지배적 독서와 타협적 독서를 통해,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저항적) 독서의 가능성을 말살하면서, 전후 국민국가 통치의 사상적, 정서적 기반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문교부 인정 『반공독본』의 재생산과 사회문화적 함의

지금까지, 1954년에 박문출판사에서 간행된 『반공독본』 1-6권의 실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문교부 추천 반공교육 텍스트의 구성 방식, 내용적 특징, 그리고 헤게모니 전략을 고찰해 보았다. 『반공독본』은 국민학교 현장에서 사용된 독본류 반공교재이지만, 특정 교과와 읽기 교재만이 아니라 1950년대 문화교육의 국가주의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념적 표상이자 서사적 텍스트였다.

『반공독본』을 비롯한 전후 독본류 반공교재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과 국민 형성 담론을 추적하는 작업인 동시에, 전후 사회의 통치 헤게모니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주지하다시피, 교과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주체 혹은 자아를 ‘국가 속 개인’으로 구성하는 계몽 미디어이다. 에띠엔 발리바르의 말처럼, 주체는 “모색과 선택으로 구성”³⁸⁾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개개인의 선택이 자발적 행위라는 관념은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모든 선택에는 “독재적인 측면”³⁹⁾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38) 에티엔트 발리바르 외, 강수영 옮김, 『법은 아무 것도 모른다』, 인간사랑, 2008, 16쪽.

39) 레나타 살레츨, 박광호 옮김, 『선택이라는 이데올로기』, 후마니타스, 2014, 23쪽.

1950년대 반공교육(혹은 도의교육)은 국민의 ‘반공 의지’를 통해 국가에 대한 ‘복종 의지’를 (재)확인하는 이데올로기적 호명 장치이자 주체를 종속화시키는 계몽적 기제이다.

이 글에서는, 전후 국민국가의 반공적 정체성이 적대적 반공주의와 도의적 반공주의라는 헤게모니 전략을 통해 입안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먼저, 『반공독본』의 적대적 반공주의는 국민이라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 통치 이데올로기로, 타자/타국에 대한 적대감을 균열 없이 학습자에게 기입하는 ‘지배적 독서’ 체험을 강요한다. 다음으로, 『반공독본』의 정서적, 도덕적 규율을 구성하는 도의적 반공주의는 학습자의 심리적 동의를 촉구하는 ‘타협적 독서’를 통해 지배질서의 규범과 규칙에 순응하는 주체를 양산한다. 이와 같이, 『반공독본』은 지배적, 타협적 독서를 통해,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적 독서의 가능성을 말살하며, 전후 국민국가 통치의 사상적, 정서적 기반을 확립했다. 이 순간, 독본(讀本)은 지배질서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상식화하는 ‘지식’이자 ‘미디어’가 된다.

1956년 제1차 교육과정이 시작된 후 『반공독본』의 판본은 변화한다. 우선 표지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6권의 발행처가 ‘박문출판사’에서 ‘이문당’으로 변경되었으며, 검인정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문교부 추천” 도서에서 “문교부 인정” 교재가 되었다. 내용적인 차이는 크게 발견되지 않으나, 속표지에 있던 「교수지침」이 사라진 것이 특징이다. 본격적으로, 제1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노골적인 반공주의보다는, 도의주의와 반공주의를 결합한 정신교육과 도덕교육이 실시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 「교수지침」이 없다고 해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습 제재와 익힘 문제는 여전히 ‘교수지침’에 입각해 있다.

한국전쟁 이후의 사회 혼란과 갈등을 강력한 국가 이데올로기를 통해 관리하던 『반공독본』이 “문교부 인정” 교재로 제도화되어 재생산되게

된 것이다. 노골적인 교수지침은 사라졌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학습 내용은 반공주의와 도의주의가 결합된 국가주의 문화교육의 통치 기제와 다르지 않았다. 그것은 향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공산 호러’와 ‘국민 도의’의 모습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다.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 한국교육문화협회, 『(문교부 추천) 반공독본』 1권, 박문출판사, 1954.
한국교육문화협회, 『(문교부 추천) 반공독본』 2권, 박문출판사, 1954.
한국교육문화협회, 『(문교부 추천) 반공독본』 3권, 박문출판사, 1954.
한국교육문화협회, 『(문교부 추천) 반공독본』 4권, 박문출판사, 1954.
한국교육문화협회, 『(문교부 추천) 반공독본』 5권, 박문출판사, 1954.
한국교육문화협회, 『(문교부 추천) 반공독본』 6권, 박문출판사, 1954.

2. 참고 논저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권, 민음사, 2002.
김동규, 「호러리즘, 폭력의 새 이름」, 『오늘의 문예비평』 110호, 오문비, 2018, 174-191쪽.
김영돈, 「정과 시간의 도덕(도의) 과목은 어떻게 지도되어야만 할 것인가」, 『도의교육』 제2집, 도의교육위원회, 1957.
문교부, 『문교개관』,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1958.
박형준, 「한국 문학교육의 제도화 과정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2012.
_____, 「1950년대 문학독본의 감성 형식과 젠더 정치-박목월의 『여학생 문학독본』 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9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69-94쪽.
이동현, 「1950년대 “道義”교육과 국민 형성」,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_____, 「1950년대 국민화 담론 연구—‘道義’교육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43집,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08, 185-213쪽.
이순욱, 「한국전쟁기 전시독본의 형성 기반과 논리」, 『한국문학논총』 58

- 집, 한국문학회, 2011, 423-452쪽
- _____, 「한국전쟁기 문학독본과 문학교육—한국전쟁기 독본 연구 2」, 『한국문학논총』 66집, 한국문학회, 2014, 361-391쪽.
- 이순욱·임주탁, 「한국전쟁기 한문독본 연구—『常用漢字讀本』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71집, 한국문학회, 2015, 549-577쪽.
- 레나타 살레츨, 박광호 옮김, 『선택이라는 이데올로기』, 후마니타스, 2014.
- 에티엔트 발리바르 외, 강수영 옮김, 『법은 아무 것도 모른다』, 인간사랑, 2008.
- 일레인 볼드윈 외, 조애리 외 옮김, 『문화 코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화연구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한울, 2014.
- 주디 자일스 외, 장성희 옮김, 『문화 학습: 실천적 입문』, 동문선, 2003.

<Abstract>

A study on the hegemony strategy and
socio-cultural implications of
『anti-communist textbooks』 after the Korean
War

Park, Hyunj-Jun*

This paper empirically identifies the realities of the “anti - communist readers” 1-6 volumes published shortly after the Korean War. This course examines the structure of text, content features, and hegemony strategy. “Anti - Communicative Reading” is a reading anti - communicative textbook used in the primary school field. And it is an ideological representation and narrative text that can confirm the nationalistic character of cultural education in the 1950s. In the 1950s, anti-communist education was carried out in all directions. It is the “anti-textbook” that shows such characteristics well. “Anti-Communist Reading” is a cultural mechanism created to effectively transfer anti-communism ideology to the learners immediately after the Korean War. And it was a tool of cultural enlightenment for the formation of Korean national identity. This anti-communion textbook is an institutional form that disseminates “anti-communist education” and “Do-Eui” (Moral) educ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anti-public identity of the nation-state after the Korean War consists

*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f two hegemony strategies. First, it is ‘ideological antagonism’ and second is ‘compromise Do-Eui’(morality). “Anti - Communist Reading” is a text that confirms the hegemony strategy of the ruling group after the Korean War. The anti-public identity of the nation-state after the Korean War consists of two hegemony strategies. First, ideological antagonism and second, uncompromising attention. It has the following effects. First, we give learners the ‘dominant reading’ experience. Second, students are given ‘compromising reading’ experiences. Thus, the “anticommunist readers” abolished the critique consciousness of the dominant group ‘s ideology and the possibility of “resistive reading”. In conclusion, the “anti - communist reading” published after the Korean War contributed to establishing the ideological and emotional base of national state rule.

Key Words: 『anti-communist textbooks』, hegemony strategy,
Anti-communism education, “Do-Eui”(Moral) education,
dominant reading, compromising reading

■ 논문접수 : 2018년 7월 20일

■ 심사완료 : 2018년 8월 27일

■ 게재확정 : 2018년 8월 28일